

사회

청소년 손안에 쥐어준 '19禁'

스마트폰 메신저 앱 음란물 대규모 유포 성매매 창구 악용... 대기업 직원 등 적발

스마트폰 무료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와 음란물 유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 직원이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거나, 기간제 교사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메신저 앱을 이용해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6차례나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수의 한 대기업 직원의 문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앱에 유포한 김모(32)씨 등 44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월 여수에서 15살 여중생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나 5차례에 걸쳐 3만~15만원 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황모(24)씨는 지난 2월 앱을 이용해 17살 여고생에게 10만원을 제시한 뒤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적발됐다. 음란물 유포도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김씨는 앱의 블로그 기능을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1137개의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이중엔 5살로 추정되는 여자 아동이 여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도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와 음란물 게재가 방치돼 있는 데도 미

성년자의 사용엔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실제 경찰이 음란물 배포로 입건된 44명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10대가 16명(36.4%)에 달했다. 또 입건된 이들 중에 특수강간과 강간미수 등 성폭력 전과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성인PC방·DVD방·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상영·배포 하는 등의 행위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동영상 촬영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스마트폰 음란 앱 규제가 없다

청소년 차단 대책 시급

스마트폰이 음란물 유포나 청소년 관련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규제는 사실상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물이 담긴 앱을 출시해도 제작사나 오픈마켓에 대한 규제가 없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에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무료 이용이 가능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20여종에 이른다. 대표주자인 카카오톡을 비롯, 대형포털사이트와 중소계 작사들이 잇따라 출시해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2~3개씩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경찰이 심해지면서 차별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음란놀이터'로 전락하기도 한다. 1일 광주경찰청의 수사에 적발된 A앱의 경우 메신저 내에 사용자 누구나 검색

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블로그 기능을 갖춘 '아빠' '조간남'과 음란물 배포가 자유자재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현재 메신저 앱은 제작과 배포에 대한 심의는 물론, 청소년 이용에 아무 제약이 없다. 개인적인 통신 내용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앱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PC는 성인 인증절차나 차단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휴대 폰은 개인용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규제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한 앱제작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메신저 앱 제작사가 단속인력을 배치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게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니원침 (8622) 김경두



광주서 비브리오 검출

살벌한 10대

흔계 30대에 발길질... 머리 부딪혀 숨지게

16살 고교생이 잘못을 흔계하는 30대 어른과 시비를 벌이다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혐악해진 세태에 탄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부경찰은 길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흔계하는 김모(39)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16·고1)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씨가 흔계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행인 신모(20)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0시10분경 수원 권선구 서동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김군 일행 5명이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이들을 나무랐다.

길을 가던 신씨가 지나치다며 김씨를 때렸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김군이 다시 싸움을 말리다가 김씨의 팔에 맞아 화가 나 김씨를 발로 찹고, 김씨는 쓰러지면서 뒷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혔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8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달 27일 오후 숨졌다. 김씨는 이날 아내,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아내는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김씨의 아들(6)은 폭행 과정을 바로 옆에서 모두 목격했다. 경찰은 주변에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지하철역 피서 짐통더위가 이어진 1일 오후 광주도시철도 금남로 4가역 '만남의 장소'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금남로 4가역은 주변에 매트로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배치돼 있는 시민쉼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엑스포 투자 미끼 7000만원 사기

동부경찰, 3명 조사

여수엑스포 특수와 관련 박람회장 인근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60)씨 등 3명이 지난 3월 초 광주시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4)씨에게 접근해 여수엑스포 기간 여수웅천지구 환승주차장 인근의 식당 운

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박씨 등이 웅천지구 내 주차장과 여객선 터미널 등이 예정된 부지에 식당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박씨 등은 웅천택지개발지구 개발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으려면 차용증을 써줬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면유도제 처방 여성 숨지자 산부인과 의사 시신 몰래 버려

지하철역 피서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몰래 내다버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은 1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

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지인 이모(여·30·무직)씨가 수면유도제 주사를 맞은 뒤 숨지자 이씨의 외제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으

로 가서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피곤하다며 찾아와 이 약물을 5mg 가량 투여했지만 2시간쯤 뒤 깨우려 갔을때 숨져있어 병원에 누를 기철지 갔아서 범행했다. 투여할때 옆에 간호사는 없었다"

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듣지 않자 시신을 황체에어 태우고 주차요원에게 연락해 대기시켜놓은 자신의 승용차에 몰래 싣었지만, 병원에서 '롤'이 오자 돌아가 진료를 한 뒤 3시간쯤 뒤인 31일 새벽 시신을 이씨 차로 옮겨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날 오후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한 시민은 비스듬히 세워진 이씨 차 옆에 주차했다가 창문 안쪽으로 이씨의 모습을 발견, 이상하다고 생각해 병원에 누를 기철지 갔아서 범행했다. 투여할때 옆에 간호사는 없었다"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금목걸이를 걸고 튀어라"

○ "금목걸이 가 마음에 든다"며 고르는 척하다 주인이 건넌다 공갈 목에 걸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중.

○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 김모(55)씨의 금은방에서 20대초 추정되는 남성이 24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 경찰은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신장 180cm 가량에 팔뚝에 문신이 있는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5177	1	광산구 운남동 777-1 운남3주공3단지아파트 307동 2층 202호 37.67㎡	아파트	66,000,000 66,000,000	
2012타경 6354	1	북구 용봉동 976 중흥에스-클래스 102동 1층 105호 84.8358㎡	아파트	185,000,000 185,000,000	현찰조사당시미납 관리비895,710원
2012타경 8565	1	광산구 월곡동 613-1 하남공로타운 3층 5호 총 508호 84.72㎡	아파트	125,000,000 125,000,000	
2012타경 8732	1	나주시 용산동 344 용산2단지주공아파트 204동 6층 603호 49.62㎡	아파트	52,000,000 52,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2타경 9278	1	북구 용봉동 416-2 185㎡ 동소 416-2 102.15㎡ 부속건물 3평3.1㎡	대지	82,750,110 82,750,110	일괄매각, 임차인 있음, 토지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지목
2012타경 9834	1	북구 중흥동 327-2 117.4㎡ 제시외 화상실 등 28.4㎡ [제시외건물매각에서 제외]	대	35,792,900 35,792,900	일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만 허용, 각공유자감성수지분7분의3전부
2011타경 34468	1	화순군 도암면 우리리 신123 3738㎡ [공유] 임야	임야	11,385,970 11,385,970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1회만 허용
2012타경 6996	1	화순군 남면 백송리 신40-1 2959㎡ [분묘수] 임야	임야	7,989,300 7,989,3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7951	1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661-2 3242㎡ [공유] 지번중우지4분의1전부][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만 허용,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9,726,000 9,726,000	분묘유지소재하여 분묘가지권설정이 지났음
2012타경 9568	1	영광군 백수읍 하서리 271-1 620㎡ [공유] 자활학원지분620분의310전부]	대	3,100,000 3,100,000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1회만 허용
	2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 257 506㎡ [공유] 자활학원지분2분의1전부]	대	3,036,000 3,036,000	권 행사 1회만 허용
	3	영광군 군서면 마름리 348-35 294㎡ [공유] 자활학원지분294분의147전부]	대	2,058,000 2,058,000	권 행사 1회만 허용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1	동구 산수동 21-5 1층 66.09㎡	약국	104,000,000 104,000,000	
	2	동소 21-5 2층 80.56㎡	환약방	78,000,000 78,000,000	
	3	동소 21-5 3층 80.56㎡	의원	66,000,000 66,000,000	임차인 있음
2012타경 8060	4	동소 21-5 4층 사무실 80.56㎡	사무실	66,000,000 66,000,000	
	5	동소 21-5 5층 사무실 80.56㎡	사무실	66,000,000 66,000,000	
	6	동소 21-5 지하층 223.26㎡	다방	116,000,000 116,000,000	
	7	동소 21-5 지하층 98.79㎡	기원	52,000,000 52,000,000	
2012타경 8855	1	서구 광천동 650-164 지하층 209.96㎡ 1층 178.87㎡ 2층 205.8㎡ 3층 199.8㎡ [공유] 자활학원지분3분의1전부]	소매점, 사무실, 담구장, 다방	114,452,850 114,452,850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만 허용, 임차인 있음

● 공매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지번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소신고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8. 16. [목] 10:00
3. 매각물건명세서 : 2012. 8. 23.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한 가압인찰방법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덧붙여 자기유치표 또는 현금 등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액을 제외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서와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공과 계약금 상사하여 최고의 가격을 입찰한 사람을 최고거래소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거래소신고자, 차순위거래소신고인 등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원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장착자 총결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는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금까지 해당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금은 동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을 이내로 지급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물가상승,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로 인하여 매각대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매각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인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인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동소와 지방국세청을 납부한 후 동소세영수확인서 및 동소세영수필증 등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연금(지방세영수확인서)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인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물가상승,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로 인하여 매각대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매각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또는 불완전 담보권 등 제2순위 담보권설정신고금과 미지급금과 같은 임차인이거나, 사업자 등특정당량 미충 원상회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임차인 등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매각기일 이후 잔부담 금액관련 명세서, 중도금지급고지서 및 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수령하면 민사집행(신청)에 비하여 임차료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리 필요한 장비를 작성한 후 입찰장착자 총결의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매각조건서의 내용은 입찰장착자총결의에 의하여 확정된다.
④ 입찰보증금에 이상 있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다고 신청받고 소명하고 오시기 전까지,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관련한 위장행위 및 증거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매각결정기일까지 매각대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매각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매각결정기일 이후 매각대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매각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⑥ 공매의 물건은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의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하면 게시자의 공고나 법원에 비하여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나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허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한다.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공고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열람이 되지 않거나 열람이 안되는 경우 관련법령을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대금 신청을 하고, 대금지급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추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8. 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용민